

# 제 3 부 일상생활

## 제3부 일상생활

### I. 의생활

#### 1. 일상 및 의례를 통한 의생활

일상복으로써 전통적인 복식은 1974년도 이후에는 거의 입지 않는 옷이 되었고 의례복으로서만 소용될 뿐이다. 셔츠, 점퍼, 바지 등을 비롯해 아이들옷은 주로 장에서 구입하는 것이었다. 남성용양복이나 여성용 옷은 옷감을 따로 구입하여 주로 안중의 양복점 또는 양장점에서 맞추다가 1981년도에는 기성복이 보편화되면서 맞춤 양복도 거의 드문 일이 되었다. 구두, 가죽 장화 역시 주로 맞춤으로 안중에서 구입하였으나 1987년도 이후에는 기성화를 구입하여 신게 되었다. 양복, 구두 등의 메이커 상품의 등장도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1977년도에 처음 “파카”라는 동절기 방한복이 등장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 추위 때문에 처음 맞추어 입었다. 그 밖에도 “가죽잠바”, 코트, 원피스 등

사진 8. 아우외에 참여한 형제회 회원의 부인들



의 일상옷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재봉틀을 새로 구입하기도 하지만(1977년도) 한복 역시 장에서 맞추어 입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1988년도에는 이미 신권식 본인도 의례를 위해 입은 한복차림새에 거부함을 느낄 정도로 전통복식은 일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용 한복은 계절별로 맞추어 입고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전통복식 선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용으로는 내의 선물이 주종이었으며 중매 선물로 양복지를 받기도 한다. 딸의 혼수용(1979년도) 준비에도 기성 내의를 준비하여 이전과 다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손주들의 백일, 돌 등의 의례에는 옷을 선물하거나 금반지 반 돈을 해주었다. 1982년도에는 윤달해라고 하여 셋째와 다섯째 조모의 수의를 미리 만들기도 한다.

#### 2. 미용과 장신구

1973년도까지 신권식 본인은 이발을 무척 자주 하는 편이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월 1회 이발을 하고 있었는데 1974년도 이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 있다. 특별한 용무를 앞두고 있을 때에 비로소 머리를 손질하고 그 횟수도 이전보다는 줄어 년 중 5회를 넘지 않았다. 특히 1981년도 이후에는 4개월, 5개월 만에 이발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남성들의 머리손질은 나이와 특별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7년도에는 신권식 자신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뇌수술 후 깎은 머리를 감추기 위해 처음 가발을 사서 쓰기도 한다. 또 1979년에는 나이가 들면서 처음으로 염색을 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의복 이외의 장식과 꾸밈도 이전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잦은 대외활동에 따른 변

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계는 중요한 차림 중 하나이며 거의 5, 6년에 한번씩 새 시계를 구매하였고 1979년도에는 안경을 맞추어 쓰게 되었다.

결혼을 위한 혼수에서도 패물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1989년도에 며느리를 보면서 패물 값만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 3. 기타

그 밖의 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에서 선상품으로 참석자들에게 수건을 배포하는 것도 1975년도 이후에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또 신권식가는 서울과 부천 등 자손들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가까운 평택, 수원 외에도 1989년 이후에는 영동포 동지에서 특별한 의류용품을 구입하였다. 특히 백화점의 이용도 달라진 구매현상이다.

한편 신권식의 대외활동과 양복의 착용은 세탁에 있어서도 안중의 세탁소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불 등의 이용에서는 1990년도까지도 요즈음과 같은 기성용 이불보다는 이불에 소창을 씌운 전통적인 이부자리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II. 식생활

### 1. 일상식과 의례식의 변화

일상에서 주식으로 소용되었던 주요 곡물은 이전의 일기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백미, 보리, 찹쌀, 수수, 밀가루 등이었다. 쌀, 보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던 것은 소맥분, 즉 밀가

루와 국수였다. 다만 주곡농업 자체의 변화는 보리와 밀가루 등의 주 식자재 공급이 직접적인 경작을 통한 자급자족에서 주로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확산은 쌀의 대용식이었던 보리경작의 폐기로 이어졌으며 미국의 밀가루 무상공급에 이은 대량 수입은 우리 밀을 굳이 재배하지 않더라도 값싼 밀가루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일기에서 밀(소맥)은 1975년까지, 보리는 1978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에는 보리쌀과 밀가루의 수요는 주로 장시를 통해 공급이 이루어졌다. 1990년도에는 엿기름 용도로 소용될 만큼의 보리를 다시 심기도 하는데 “보리 안심은 지가 20년 가까이 된 상 십다.”(1990년 6월 13일자)고 기록되어 있다. 국수 역시 이전에는 정미소에서 직접 “눌러” 오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러한 관행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전 일기에서 주곡으로 소용되었던 메밀은 재배는 물론 식료에서도 빠져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부식으로 재배했던 채소, 양념류 역시 마찬가지로 배추, 무, 시금치, 고구마, 감자, 고추, 콩, 들깨, 참깨, 녹두, 팥 등이 있었다. 기름은 장에서 짜오는 것도 이전과 같았으며 달라진 점은 이전에 장 등에서 구입하였던 마늘의 직접 재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가내에서 소용되는 양념의 양이 될 만큼 만족스러운 수확량을 거두지 못하여 부족한 마늘은 다시 장이나 처가에서 농사지은 마늘을 구매하기도 한다. 일기에는 1988년에야 비로소 먹을 만큼의 마늘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78년도에는 농사의 일환으로 느타리 버섯재배를 처음 시도하여 실패하였지만 이후에 재차 시도하였다. 따라서 재배한 버섯도 식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1981년도부터 1986년까지는 거의 매해 7월 보

를 경부터 말까지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산 버섯을 비롯해 매년 11월에는 도토리를 채취해 부식으로 이용하였다.

농사일이 한창인 4, 5, 6월과 10월 추수기에는 일꾼들의 참 준비를 위해 장에서 식료품을 대량 구입하는 것도 1977년 이후부터는 꾸준한 내용이었다. 주로 채소 종류로는 배추, 호박, 양파, 오이 등이었고 그 외 해산물(김, 파래, 생선류)과 육류(닭, 돼지고기)가 주류였다. 장류는 11월에 메주를 띄우고 3월에 담는 것이 일상적이며 김장은 매년 11월 25일 이전, 음력으로로는 10월 보름 경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이후 부천에 옮겨 살고 있는 자손들을 위해 평택과 서울(부천)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장을 하였다.

과일류 역시 대추 외에는 직접 자급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과, 귤, 수박 등은 직접 구입해 섭취하였다. 그밖에도 10월에는 땅콩을 추수하였고 옥수수도 재배했는데 옥수수를 먹기도 했지만 주로 소의 여물 마련을 위해 심었던 것 같다.

육류로서는 닭, 돼지고기가 주류였고 소고기는 의례 때나 외식으로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 닭은 집에서 기르던 것을 잡거나 장에서 구입하지만 돼지고기는 주로 마을 내외(주택, 새동리 등)에서 직접 도축한 고기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는 기계화 이후에도 농우(農牛)와 재산증식 수단으로써 중요한 수단이었고 다른 가축들에 비해 도축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소 이외에는 마을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84년도 일기에는 수입소고기 구입(10월 17일자)이 언급되어 있고 1985년도에는 27명이 함께 소를 구입하여 도축해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7월 27일자) 또한 1987년도에는 소 값의 폭락으로 도처에서 밀도살이 횡행하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또 달걀은 주로 구매하여 먹는 식품이었다.

개고기의 소비도 다른 육류 못지않은데, 1981년 도까지만 해도 집에서 직접 또는 마을에서 공동 부조를 통해 음식을 장만하고 나누어 먹는 ‘도리기’를 통해 연중 서너 차례 이상 섭취하였고 1979~1980년도에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연중 9회 이상의 “개 도리기”를 하였다.

이후에는 보신탕 전문집에서 먹는 외식의 한 종류로써 가내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수, 닭, 개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함께 추렴해 나누어먹었던 ‘도리기’의 문화 역시 마을 내에서 1986년도까지 이어진 이후에는 기록에서 사라지고 있다.

젓갈과 어패류는 이전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직접 채취하였으나 해안 개발로 만호리(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고로니, 화성의 선창과 배미, 조암리 등지에서 젓갈용 새우와 송어를 주로 구입하였다. 어패류 역시 동리 사람들이 단체로 가깝게는 만호리에서 멀리 아산만에서 맛 조개, 소라 등을 캐러 가기도 하고 1989년도에는 화성의 서신, 대부도에서 맛을 채취하기도 한다. 인근의 바다가 사라지면서 바닷고기 보다는 마을 내 웅덩이에서 미꾸라지[미꾸리]나 붕어 등 민물고기를 잡아 자주 조리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농사일 준비를 위해 장을 볼 때 주로 구입하는 생선은 동태였다. 소금도 이전에는 염전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로 장을 이용하였다.

모든 의례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전과 달리 외부에서 예식을 치루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본 의례는 외부에서 하고 다시 동리잔치를 병행하여 행한다. 음식은 대체로 친척간이나 동리 주민들 간에 서로 나누어먹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생신과 환갑 등의 의례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반을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반식사에 참석하는 대상은 직계 조부모와 부모를 비롯해 장모, 종조

부모와 당숙부모까지였다. 특히 신권식 본인과 아버지 생신에는 동리 사람들까지 초청하여 조반 또는 저녁을 대접하였다. 경사스런 일 외에도 제사차림을 동리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도 계속되는 풍습이다. 또 환갑, 시제, 백일제, 소상 등을 치르는 친척과 동리 가구에 음식 고임을 해주기도 한다. 그 외에도 혼인 후 “재행”이나 “집 알림”이라고 하여 결혼을 하는 식구를 가족과 친척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주목되는 의례행위였다.

1983년도 이후부터는 자손들이 장성하여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신의례는 편의상 공휴일이나 연휴를 이용해 치르거나 자손들이 사는 곳(서울, 부천 등)에 가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화된다. 또 결혼식과 피로연 외에 환갑 등도 외부의 전문 음식점 특히 뷔페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1980년대 말경부터 보편화되는 추세이고 신권식 본인의 회갑연 역시 수원외의 뷔페식당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음식은 역시 미역국과 국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며 또 두부를 만드는 것도 의례를 치르는 데 중요한 음식이지만 농사일 반찬으로 준비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는 신권식가의 생일상에도 비로소 케이크를 올

사진 9. 가족과 함께 한 대국 선생의 52세 생일파티  
(1980년 1월 30일)



리는 신 풍속이 자리 잡으며, 일기에서는 1986년부터 이러한 기록이 보인다.

또 명절과 세시의례도 점차 축소되며 정월, 추석, 보름 등에 각각 흰떡, 송편, 오곡밥 등을 만들어 먹고 복날에는 개, 닭 등을 이용한 보신탕, 삼계탕 등의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꾸준히 행하여지고 있다. 정월 보름에도 매년 떡을 하였으나 떡에 대한 기호의 변화로 1986년부터는 떡을 준비하지 않게 된 것 역시 변화된 모습이다.

수의를 만들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팔죽을 쑤어 대접하는 것도 눈에 띄는 의례음식이었다. 민간신앙 의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음력 11월 3일경에 떡을 하였다는 것도 주목되는 내용이었다.(1979년도)

한편 마을에서 특별한 음식은 전술한 ‘도리기’와 같은 풍습이지만 신권식 자신의 사회생활 반경의 확대는 다양한 외식문화를 접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회선”이라고 하여 주로 만호리, 아산만, 남양만, 반월, 삼곡천 등지로 지인들과 함께 가서 회(낙지, 송어, 도미, 꼴뚜기 등), 매운탕, 장어구이 등을 먹는 것이 가장 잦은 외식에 속하였고 그 외에도 불고기, 갈비, 냉면, 보신탕, 삼계탕, 자장면 등의 음식이 외식에 주로 등장하는 음식이다.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식에는 잉어회, 고양이고기, 오리고기 등이 있었고 1986년도에는 보리밥도 특별한 음식으로 나타난다. 또 사교모임에서 다방을 이용하거나 손님 접대에 차를 대접하는 것도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는다.

## 2. 인스턴트 식료품의 보편화

무엇보다 음식문화의 큰 변화는 인스턴트 식료품의 보편화이다. 특히 라면이 주식의 대응으로써 크게 자리 잡게 되는데 신권식가의 경우는

1974년도 이후로 보여진다. 국내에서 라면은 1963년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삼양라면에서 9월 15일 처음 라면을 출시하였다. 신권식은 부인이 집을 비운 날이나 간단한 식사를 위해 주로 라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1975년도 이후에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라면 1상 자식이 마을에 공급된다.

라면 외에도 양념류에서 미원도 빠지지 않았으며 선상품에서도 주스류, 요구르트와 같은 인스턴트 음료가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통닭은 주로 야유회를 준비하거나 외식에서 나타나는 음식이었는데 1990년도에 들어서는 족발, 통닭은 일상적으로 사다 먹는 음식이 되었다.

한편 선사용 식료품으로는 고기 이외에 정종, 우유, 설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 3. 농촌생활과 음주문화

신권식 자신의 음주기록은 이전에는 농한기와 관련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것에 반해 1974년도 이후에는 거의 매주 1회 이상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신권식이 40대 중반이 되는 1974년부터 1982년 50대 초반까지의 음주기록의 비중이 높는데 이 시기 중 많게는 1개월 내에 10일 이상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당시 신권식 자신의 대외활동 비중이 커지고 활동지역의 폭도 마을보다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흥의 분위기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보통 주점으로 기

록되었던 이전과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극장식 빠, 요정,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신종 유흥업소도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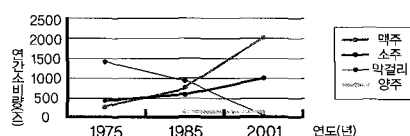
주종도 막걸리, 소주, 정종 등에서 맥주가 이전보다는 주류를 이루는 것도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통계청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한국인의 연간 주류 소비량의 변화”를 보면, 막걸리, 소주, 맥주는 1975년도를 기점으로 각각 막걸리는 급격한 하락세이고 소주와 맥주는 성장세를 보이는데 특히 맥주는 거의 급격한 소비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sup>5)</sup>

무엇보다 막걸리, 약주 등 전통주의 급격한 소비감소는 1970년대의 정책적인 가정 내 양조금지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79년 1월 23일자 기록에 보면, 고잔에 술 조사가 나와서 대곡의 동리 주민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구정, 즉 설과 같은 명절에는 제주(祭酒)를 직접 집에서 담그는 것이 전래 풍속임에도 정책적인 곡물보급의 안정을 위해 강권으로 금지하여 술은 무론하고 누룩을 만드는 것조차 불법에 속하는 일이었다는 것은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4. 농가 부업살림의 변화

취사용으로 1973년도의 기록에 처음 등장했던 곤로는 1979년까지 이어지다가 같은 해 11월에는 연탄불에 밥을 지어 먹는다. 1971년 주택 신축 당시 연탄아궁이도 역시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

5) 한국인의 연간 주류 소비량의 변화



는데 실제 사용은 1977년도에 부엌을 개량하고 보일러를 설치한 후 1979년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탄불에 짓는 밥은 오랜 시간이 소용되는 관계로 불편을 느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81년 11월 14일자) 1983년도에 전기밥솥을 구입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밥 짓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또 1984년도에는 가스렌지(8월 17일자), 압력밥솥(12월 6일자)을 구입하여 부엌 연료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1990년도에는 전자레인지를 구입하는데 이때에는 새로운 기기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그릇(접시)을 구비하게 된다. 1976년도에 냉장고를 구비하고 1978년도에는 믹서를 구입해 이전의 맷돌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1983년도에는 부인의 다리가 불편하여 식탁을 만들어 부엌에서 식사를 하게 됨으로써 밥상의 사용도 줄어들었다. 특히 1987년도에는 전통가옥의 부엌 형태인 깊은 바닥을 메우고 입식화하여 싱크대, 쌀통 등을 갖추으로써 신권식가의 부엌은 현대식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밖에 1974, 1975년도에는 식생활 개선 계몽대가 마을에 방문하여 빵을 만드는 법과 제빵술을 판매하기도 하였고 일상적으로는 술이나 상의 구입 등이 있었고 1982년도에는 윤달해라 하여 제기를 새로 장만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아들의 결혼 때 쓸 그릇을 새로 구입하기도 한다.

### III. 주생활

#### 1. 가옥의 건축과 보수

전통 가옥에서 년중 행사로 이루어졌던 초가지붕의 보수와 교체를 위해 이영을 엮고 공동으로 협업을 했던 과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야

기가 되었다. 1974년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신권식가는 물론 마을 각 가구의 지붕개량이 본격화되었다. 슬레이트, 함석, 돌기와 등 짚을 이용한 초가지붕 대신 새로운 건축 재료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신권식가는 뿐 아니라 마을 전체적으로도 축대를 새로 쌓고 도로를 보수하고 하수구를 정비 하는 등 대대적인 농촌마을의 변화를 가져왔다. 1976년도의 기록에 보면, “郡廳에서 새마을 점점 관계로 課係長이 왔다. 우선 지붕개량이다. 우리 동리는 7%는 되니까 거이(거의) 目標는 되는 상 십다.” (8월 10일자)라고 하여 당시 마을마다 지붕개량의 목표치를 채워야만 했던 것 같다.

양회(시멘트)가 마을마다 대량 보급되면서 방의 내부는 물론 외벽과 마당까지 양회로 칠하고 덮게 된다. 신권식가에서 1971년 가옥 신축 이전까지 매년 새로 만드는 작업을 반복했던 울타리 역시 1974년에 철사로 엮어 개량하고 1976년에는 아예 울타리를 블록으로 쌓은 조립식 담장으로 개량하여 담이 없는 농가의 정취는 점차 사라진다. 1974년도에 한하여 가축우리를 위한 이영 외에는 짚을 이용한 전통적인 가옥보수 노력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마을 안팎에서도 울타리, 지붕개량은 물론 아예 가옥을 신축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재래식 아궁이와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의 매해 반복했던 일 중 방바닥공사와 흙으로 된 마당을 돌우는 작업 역시도 보일러의 설치(1978년도) 등 가옥 연료의 변화와 시멘트의 보급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엌의 설비를 연탄아궁이와 전통식 아궁이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1978년도에는 목욕탕을 집안 내에 갖추도록 하였다. 1983년도에는 사랑채의 방들도 보일러를 설치하고 1987년도에는 부엌의 깊은 바닥을 채우고 입식화 하였으며

방, 목욕실 등 대대적인 집수리 후에는 바깥 기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난방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지붕, 굴뚝, 물받이 창, 하수구, 수도 등 크고 작은 가내 보수가 계속된다. 또 도배와 장판의 교체는 신권식과 그 부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새로운 마감재로 보편화된 비닐 장판은 습기가 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방바닥은 수시로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

## 2. 매매와 이사

마을 내 가옥의 매매와 임대는 알음알이로 행해지는 것은 이전과 같았지만 1980년대 초부터는 복덕방(부동산)에 직접 의뢰하는 기록이 나온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벌였던 경지정리 등 마을 주변의 공사로 해당 인부들에게 사랑방을 임대해 주기도 하고(1974년도 : 당시 월세 3,000원) 계속적이지는 않지만 편의에 따라 사랑방을 타인에게 몇 차례 임대하였다.(1981년도, 1987년도) 그 밖에 아들의 고교와 대학 통학의 편의를 위해 각각 송탄, 온양 등 학교 부근에 하숙방을 얻어 주기도 한다.

1983년도에는 신권식 자신이 농가의 어려움을 절감하여 농촌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여 방세로 가정을 경영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가격이 맞지 않아 1년 내내 집을 물색하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1984년에 신권식 소유의 서울 집을 정리하여 부친에 이층주택을 계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1986년도에 딸 가구가 서울 신월동의 연립주택을 매매하기 이전까지 부친 집에는 결혼한 딸네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이후에는 아들의 신혼집으로 사용되며

평택에는 부부가 거주하면서 계속 부친집의 가옥 보수와 임대 등의 신경을 쓰고 있다. 따라서 신권식 자신은 농촌마을은 물론 도시의 주택변화나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주민들보다는 일찍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신권식의 소유 논 주변에 수물지구 이재민 주택단지가 들어서고(1979년도) 마을 내에 공장이 설립되는 등(1983년도) 마을 주변의 모습도 큰 변화가 있었다. 앞서 신권식 자신도 농촌생활에 회의를 느끼지만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1983년도에는 입주해 얼마 살지 않았던 젊은 농군들이 안면도로 이주하였고 1988년도 한 해에는 마을의 5가구가 이사를 하여 “동리가 줄어들고 있다”(1월 12일자)고 술회하였다.

마을 내 이사도 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이삿짐을 날라주고 떡이나 팔죽을 나누어먹는 풍습도 보인다.

## 3. 연료의 변화와 각 실의 사용

1973년도 가옥을 신축하면서 연탄아궁이로 교체되면서 연료의 변화를 가져온 이후 나무로 불을 댈 수 있는 아궁이를 병용하고 있다. 1977년도에는 안채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고 1987년도에는 부엌의 높이를 마루, 방 등과 같이하여 입식화 함으로써 사랑방에만 불을 댈 수 있는 아궁이를 남겨 두었다. 매해마다 댕감 마련으로 항상 고민해왔던 것은 옛이야기가 되었지만 소의 여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댕감으로써 장작, 곡초 등의 준비는 여전히 계속된다.

연탄은 댕감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편리하였지만 제 시간에 갈아 넣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연탄을 혹여 꺼뜨리게 되면 장작불을 때어 난방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1년에 몇 장의

연탄이 소요되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1979년도 이후 연 1회 정도의 주문 기록이 있었고 한 번 주문시에 적게는 600장(1986년도)에서 700장, 800장, 또 많게는 1,100장을 들여놓기도 한다. 아마도 부부 둘이 거주하고 취사에는 곤로, 전기밥솥(1983년), 가스렌지(1984년)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서 봄, 가을, 겨울 동안만 난방이 필요함으로 대체로 주문한 연탄량은 1년간 소요된 내역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도에는 동리에서 처음으로 신권식가에서 기름보일러를 설치함으로써 또 한 번의 난방연료의 변화를 가져왔다.

농가의 각 실은 도시와 달리 사람들 뿐 아니라 농산물을 말리고 보관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이르게는 8월, 또 9월에 거둔 고추 등의 건조를 위해서 난방에는 이른 시기임에도 불을 지피거나 연탄을 때기도 한다. 4월에는 뽕씨가 제대로 발아하지 않으면 하우스에서 방으로 옮겨 발아에 용이하도록 온도를 맞추어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1974년도나 1990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농촌 가옥 생활의 단면이었다.

#### 4. 새로운 살림살이의 등장

가옥의 변화는 그에 어울리는 살림살이의 변화로 이어진다. 성냥, 초와 같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긴한 것들이 집들이를 위한 중요한 선상품에서 제외되고 이를 대신하는 거울이나 액자, 온도계 등이 중요한 축하선물로 나타난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74년도에 마을내의 전기문제가 동 회의를 통해 거론되고 1975년도에 마을 내에 전주가 설치되었다. 신권식가에는 1974년도에 집 전화를 가설하기도 한다. 전기의

설치는 부수적으로 형광등을 비롯한 새로운 조명기구가 일상화되고 가전제품의 종류와 사용도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신권식가는 1975년도의 흑백TV에서 1982년도에는 동리에서 처음으로 컬러TV를 갖추었고 선풍기, 다리미(1975년도), 전축(1977년도), 녹음기, VTR(1987년도) 등도 구비하였다. 또한 보일러 설치 이후 현대식 내실구조에 어울리는 융접 세트(1978년도)와 커튼(부천집1984년도, 평택집 1987년도) 등이 주생활에 밀접한 살림살이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구도 책장·의자(1978년도), 문갑·장롱(1981년도) 등을 새로 구입하였다.

연료의 변화는 방바닥의 보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비닐장판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엌 살림살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입식화에 따른 싱크대의 설치도 1987년도에 이루어졌다. 1983년도에 이미 부엌에 식탁을 마련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면서 식탁도 새롭게 갖추었다.

#### 5. 기타

가옥에 대한 의례로 가옥을 신축하거나 이사할 때 각각 상량고사와 입주고사를 행하는 것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변에서 신권식에게 상량문을 의뢰하는 것도 여전히 행해진다. 특히 종중의 별묘 상량문에는 공사내역을 자세히 적어 상량주에 넣기도 하였다.

한편 이전에 농가의 가옥에서 빈번했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는데 1975년도에는 마을 공동의 소방기구를 구입해 갖추어 놓았다.

농촌마을의 풍모가 변하고 담장이 쌓아올려진 것처럼 인심도 이전과 달라져가고 있었다. 이전

에도 마을 내에서 간혹 가축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당시로서는 고가인 재봉틀이 없어지는 일도 있었으나 1982년도에는 신권식 가족의 유리창을 깨고 집안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일어나자 처음 당하는 일이지만 “잠시라도 집을 비울 수 없다” (11월 21일자)고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서울, 부천을 오갈 때도 항상 집 안팎의 단속을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안팎이 구분되지 않던 이전의 농가 풍경은 사라지게 되었다.

#### IV. 대중매체와 언어생활

신권식선생의 일기자료는 사실상 그가 습득해온 문화와 지식의 결과물인 언어로 기록된 점에서 1차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한다면 문화나 지식은 개인의 언어를 표현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지식〉과 〈개인의 언어〉는 상호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인의 언어생활사를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외적인 자극의 실체와 유형〉이 끊임없이 〈개인의 언어적 자산〉을 확충하게 하는 과정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언어자료의 배경으로서 〈문화와 지식〉의 습득과 그 결과로서의 언어자료의 변화상을 아울러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는 개인의 지식습득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록된 개인의 일기는 언어생활사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신권식 선생의 일기가 지닌 언어의 궤적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자료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

#### 1. 정보의 습득과 그 특징

일기에 보이는 외적 정보의 습득 유형은 크게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신문과 잡지와 도서·라디오와 TV와 기타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들 대중매체는 모두 신권식 선생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분석하려는 언어생활사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하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해야 할 것은 정보 습득에 대한 기록이 일기의 특성상 해당 날짜의 경험으로 다루어진 것이어서 통계 수치적인 엄밀성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하루종일 책을 읽었다”는 표현은 저자의 심리적인 시간의식을 표현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단순한 착오로 인해 TV를 시청하고서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또한 책에 비해 신문은 보다 일상적 성격이 강해서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엄밀한 통계적 자료의 한계를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문화 향유의 방향을 언급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더 없이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 1) 정보습득 매체의 검토

###### (1) 인쇄매체

###### ① 신문

신권식선생의 경우 신문을 가장 일상적인 인쇄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30대 초반부터 〈자유신문〉의 구독자였으며(1960.3.2. 신청), 다른 신문을 읽기 위해 부친의 집(1963.2.14)이나 마을의 다른 사람의 집(9.18)에까지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신문 읽기는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영역이 확대된 1974년 이후의 시간대에 이르

정보습득기록

| 연도   | 인쇄매체                      |                                       |                                                                       | 방송매체     |                                 |                   |
|------|---------------------------|---------------------------------------|-----------------------------------------------------------------------|----------|---------------------------------|-------------------|
|      | 신문                        | 잡지                                    | 도서                                                                    | 라디오      | TV                              | 마을방송              |
| 1974 | 1(2.12)                   |                                       |                                                                       |          |                                 |                   |
| 1975 |                           |                                       |                                                                       |          | 1(6.27)                         | 3(5.11/9.12/12.5) |
| 1976 |                           | 2(9.1)                                | 1(10.19)                                                              | 1(10.19) | 1(9.21)                         | 3(2.27/9.3/9.15)  |
| 1977 |                           |                                       | 4(2.25/12.15/12.26/12.29)                                             |          | 1(12.18)                        | 1(2.5)            |
| 1978 |                           |                                       | 11(2.2/3.23/4.1/5.6/5.17/7.16/7.18/8.2/8.22/8.25/11.18)               |          | 1(12.27)                        |                   |
| 1979 |                           |                                       | 7(2.8/2.24/2.25/3.17/3.24/3.29/3.30)                                  | 1(10.27) | 2(10.28/11.3)                   |                   |
| 1980 | 5(2.5/2.19/3.1/5.24/6.29) |                                       | 10(1.24/3.6/5.12/6.6/8.31/9.1/9.15/10.29/11.13/11.17)                 |          | 3(1.18/2.10/5.24)               |                   |
| 1981 |                           |                                       | 6(8.31/9.1/9.15/10.29/11.13/11.17)                                    |          | 1(8.30)                         |                   |
| 1982 | 1(2.3)                    |                                       | 6(2.3/2.18/2.25/10.23/12.21/12.30)                                    |          | 1(9.4)                          |                   |
| 1983 | 1(1.20)                   |                                       | 3(1.22/3.3/8.31)                                                      |          | 6(1.4/1.12/6.12/7.2/7.17/8.7)   | 1(10.31)          |
| 1984 | 1(2.26)                   |                                       | 3(5.13/5.17/11.6)                                                     |          | 2(8.21/9.3)                     |                   |
| 1985 | 일기 누락                     |                                       |                                                                       |          |                                 |                   |
| 1986 | 2(11.13/11.29)            |                                       | 4(1.28/5.13/7.23/7.27)                                                |          | 6(1.29/2.11/2.12/2.16/6.5/9.20) |                   |
| 1987 |                           | 6(9.17/10.10/11.13/11.20/11.24/11.26) | 4(9.14/9.19/9.21/11.30)                                               | 1(2.8)   | 2(7.27/11.30)                   |                   |
| 1988 | 1(6.10)                   |                                       | 10(1.11/2.6/6.2/10.11/10.29/10.30/11.1/11.12/11.13/11.29)             |          | 3(4.26/9.17/9.18)               |                   |
| 1989 |                           | 1(1.18)                               | 5(1.11/1.12/1.17/1.19/9.3)                                            |          |                                 | 1(8.2)            |
| 1990 | 1(9.1)                    | 2(12.20/12.21)                        | 14(1.2/1.3/1.4/1.17/1.30/3.6/4.13/8.11/8.12/8.17/9.15/9.16/9.21/9.27) |          | 1(9.11)                         | 2(8.2/11.10)      |

면 오히려 기록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신문 구독 이력을 보면 〈자유신문〉과 함께 1965년 12월 23일부터는 〈경향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 2월 19일에는 〈농민신문〉도 구독한다. 이 세 가지 신문을 어느 기간 동안 동시에 구독했는지 기록을 통해서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1980년 3월 1일부터는 농협에서 주는 〈서울신문〉을 사절하고 〈한국일보〉를 구독하기 시작하여 1990년 9월 1일 구독을 중지하게 된다. 9월 1일의 일기에 “25년 보던 한국일보”를 끊었다고 했으나 사실 〈한국일보〉는 15년을 구독한 것이어서 작자는 〈한국일보〉를 〈경향신문〉으로 착오하고 있다.

신권식선생의 경우 신문은 농업과 관계된 기상예보와 정치적 사건을 이해하는 매개체로 주로 활용하였다. 1980년도와 1982년도에는 대호와 옹호의 입시와 관련해서 신문의 기사를 자세히 읽었으며 간혹 지면의 광고를 통해 부친에 가족을 구입한 경우(1984.2.26)와 위궤양 치료제(1986.11.13)를 구입한 일도 있다. 8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정치의식이 확충되고(1986.11.29) 경제적 관심으로 인해 주식시황에까지도 관심이 증폭된다.(1988.6.10) 신권식선생은 신문의 구독에 머물지 않고 신문에 투고한 사실도 확인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1980.6.29.)

## ② 잡지

본 일기에는 신권식선생의 독서이력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 잡지구독에 대해서는 주로 80년대 후반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는 이미 〈농촌근대화〉 잡지에 농업관계의 기사를 투고했고(1976.9.1), 같은 해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발간하는 〈홍농계〉라는 잡지에 〈홍농계는 유익하다〉는 논설을 투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작자가 50대 후반에 이르러 〈신동아〉

(1987.9.17 이후 3회)와 〈월간조선〉(1987.11.13. 이후 6회)의 구독으로 변화한 것을 통해 보다 시사적인 기사에 경도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신속한 시사 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접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작자 신권식선생은 인쇄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절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도서

독서야말로 신권식선생의 일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만큼 그의 성격과 취미의 일단까지도 보여주는 정보 습득 유형이다.

독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 습득의 방편으로 1~3월의 농한기나 7~9월의 휴식과 장마기, 11~12월의 휴한기는 물론이고 잠시 날씨가 궂어 농사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나 독서로 소일하였다. 그는 한번 독서를 하면 몇 편 또는 몇 권을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1회 독서시간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 최소한 3~4시간의 투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기에는 작자가 읽었던 책의 종류도 간혹 언급되어 있는데, 대개는 소설 등의 문학서임을 알 수 있다. 당시로서는 거액인 48,000원을 들여 〈역사소설전집〉(1978.3.23)을 구입하여 몇 달 동안에 독파하는가 하면, 〈세계대백과사전〉을 우편주문(1989.1.17)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지식의 영역을 섭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90년 1월 2일에는 대호가 사다준 〈解放(前sic)後史의 認識〉을 읽고 “과거나 현재나간에 國民和음을 이루지 못한 데 있고 자기주장(고집)을 내세우는 데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한 원인의 결과가 38度선도 해결 못한다.”는 정치의식의 일단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가 왜 이토록 독서에 열중했는가 하는 사실을 피력한 일기가 있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울적한 하루 大浩을 진정시키기 爲해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야했다. 大浩는 아버지에게 未安하여 태연한 측 하고 있으나 간혹 한숨소리가 나오는 데는 나의 심정을 흔들어 놓는다. 종일토록 찻찻한 하루를 마을도 안가고 大浩와 같이 있었다. 향학열에 불태워 주기 위해 온갖 정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所願은 안 이루어준다. 나의 소원은 3男妹를 모두 학사家族을 이루라 했으나 모두 허사.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일직이 어머니를 잃은 나는 뒤 도라 보아주는 사람 없이 천하게 자라 공부의 집념은 용소슴쳤으나 돌보아주지 않아 급기야는 6·25란 비극의 전쟁으로 軍隊에 가서도 온갖 책으로 오직 공부만 했다. 나의 불타는 향학열은 누구보다도 웃뜰 같다. 이 소원은 끝내 이루지 못해 子息들에게 심겨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으나 아이들은 노력은 소홀했다. 급기야 서두르는 진학은 실패하고야 마르니 이 심정 어이하리요. 아... 왜 이다지도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니 울적하기만 한 하루였다.(1984. 1. 22)

그가 왜 그토록 독서에 전념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는지는 위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책과 교육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취미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신권식선생의 독서이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50대 초반에 들어서 붓글씨쓰기를 취미로 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82년 1월 30일 처음 붓글씨연습을 한 이후 책을 읽는 날은 거의 어김없이 붓글씨 연습도 함께 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독서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붓글씨쓰기는 일기쓰기와 일정하게 연결해 볼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독서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쓰는 행위는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받아들이는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 동시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인 언어수준의 심화가 가능

할 것이다. 다만 신권식선생의 경우, 남에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일기라는 지극히 개인적 목적의 글쓰기였으므로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 정서법 차원의 세련도는 애초부터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그토록 오랜 기간 읽고 쓰기를 병행해왔으나 정서법을 자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붓글씨쓰기를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정하건데 글씨쓰기의 형태적 관점으로 인해 그는 훨씬 일찍 정서법에 대해 자각했었으리라 본다.

그의 독서이력은 문학작품에서 시작해서 풍수지리, 역사와 교양지식의 함양에까지 확장되었으나 그는 애초부터 문학류를 즐겨 읽었고, 여기에서 문학적 감수성과 글 자체의 기록과 표현에 유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은 자기표현인 일기의 본령을 넘어 자세한 시대의 기록을 담는 결과가 되었다.

## (2) 방송매체

### ① 라디오

방송매체 가운데 라디오는 신문과 함께 가장 일찍 보급되었던 만큼 일상적인 정보습득의 매체였다. 작자는 주로 라디오를 통해 농업과 직결된 기상예보와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1976.10.19.). 1979년 10월 27일에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도 저자는 라디오를 통해 접한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니 만치 가장 신속한 파악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TV 및 마을방송

전통사회에서 마을의 연락사항은 편지와 인편이었으나, 1974년 새마을사업과 함께 시작된 전기 전화 가설 작업이 1977년 6월까지 마무리 되면서 대곡마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신권식선생은 1975년 6월 27일에 기타 전기용품과 함께 TV(123,000원)를 구입하여 시청하게

되었는데, 그는 TV 시청을 그리 매력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년에 고작 한두 차례 TV 시청에 대해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유독 1979년, 1980년 그리고 1983년과 1986년, 1988년 등은 기록이 많다. 79년부터 80년은 박정희대통령의 서거 방송(10.28)과 장례식(11.2), 그리고 최규하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1.18.), 광주학생소요(5.24) 등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으므로 방송에 대한 관심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TV방송에 대한 나머지 기록은 대부분이 자녀들의 입시문제 보도와 스포츠 중계 시청에 관한 사실에 집중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프로복싱 박찬희선수 제2차 타이틀방어전(1980.2.10), 프로복싱 장정구선수 WBC 1차 방어전(1983.6.12.), 프로복싱 신희섭선수 WBA 도전 실패(1983.7.17) 뿐만 아니라 월드컵축구(1986.6.5)나 아시안게임(1986.9.20 개막전 이후), 서울올림픽(1988.9.17 개막전 이후) 중계 방송은 특별히 신권식선생이 관심을 가지고 그 소감을 실감나게 표현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볼 때, 작자의 TV에 대한 시각은 <필요한 것만 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TV시청의 경향은 흑백TV를 칼라TV로 교체(1982.9.4)하고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는데 이는 같은 시대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사적인 소식은 주로 신문에 의존하고 교양은 도서에 의존하던 신권식선생에게 자기중심을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TV는 어쩌면 무관심했던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한편, 대곡마을 마을 내의 소식전달은 라디오와 TV 등의 대중매체가 발전을 계속했어도 여전히 <마을방송>에 의해 유지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소산인 마을방송은 주민들의 경조사를 알리고 관청에서 시행하는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주민들의 공동작업을 전달하는 등의 몫을 지속

했다. 이 가운데 1983년 10월 31일에 발생한 소도독 사건은 마을방송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주민들에 의해 소도독을 쫓아내고 경각심을 갖도록 만듦으로써 방송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사례라 할만하다.

## 2) 개인적 지식 습득과 그 변화

1959년부터 시작된 대곡일기의 초기 기록에는 신권식선생의 개인적 지식습득에 대한 단서를 많이 남기고 있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대여용 도서를 통한 끊임없는 독서는 단순히 지식습득의 수준을 넘어 그의 언어구사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업수준에서 계속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지식습득 방법은 언어생활사의 측면에서 보면 철자법이나 맞춤법, 표준어와 방언 그리고 외래어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은 그의 문장구사력에 담긴 표현력의 미학일 것이다.

곳곳에서 구사되는 그의 문장력은 글쓰는 목적을 분명히 자각한 것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문장 하나 하나뿐만 아니라 신년초의 새해 소망과 제야의 한해 마무리에 이루는 서술의 짜임도 이러한 표현력의 일부로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 일기자료는 지역의 50여년간 개인의 언어생활사 자료로 보기 드문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특정인이 보유한 언어적 자산인 동시에 경기도 남부지역어의 실상을 장기간 보여주는 자료의 가치를 지닌다.

## 2. 공적인 역할에 따른 지식의 활용

1974년~1990년까지의 대곡일기는 신권식선생

의 역할이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마을과 지역사회로 역할이 확대되는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세세한 자기신변 기록보다는 마을의 이장과 초등학교의 육성회장, 친목단체인 형제회의 회장, 기타 많은 단체의 일과 관련한 기록이 많다.

그래서 1974년 이전까지의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신문과 독서에 대한 기록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기록의 비중 변화란 이전의 지식습득의 방법이 변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서술대상의 변화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중요성에 따른 기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기록되지 않을 것일 뿐, 여전히 신문과 독서는 그의 주된 지식습득 방법이었지만 일기의 중심서술이 아니므로 기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란 뜻이다.

이 시기의 일기에서 중요 사항으로 서술되는 것은 마을의 이장과 단체의 장으로서 공문의 작성과 대필, 금융관계 업무의 대행, 행정적 서류의 출납과 관계된 일 등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임하는 그의 자세이다. 이를 언어생활의 활용적 측면에서 특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일을 주관하는 인사의 의무 때문이기보다는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 1) 매체변화를 통한 사회상의 이해

전통사회에서 마을의 연락사항은 편지와 인편이었으나, 1974년 새마을사업과 함께 시작된 전기 전화 가설 작업이 1977년 6월까지 마무리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전기 전화가 가설되기 이전까지는 정보전달 방법도 직접적인 회합이나 회의가 상대적으로 많아 농사일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마을회관에 앰프가 설치되고 집집마다 전기와 전

화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처리되고 갈등요소들도 대폭 축소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작자의 활동영역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작자가 TV와 기타 전기용품 구입(1975. 6. 27.)한 몇 달 뒤인 1975년 12월 20일에는 청북면의 우체국이 신축되었다. 마을 외부를 향한 더욱 가까운 길들이 다양하게 열리게 된 것이다. 변화는 더욱 가속도를 내게 되었다.

### 2) 확대된 사회인식

이 시기 대곡일기에서는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정국인식과 이를 통해 사회적인 시야가 매우 확대된다는 점을 특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74년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과 육영수여사 서거, 1979년의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 1980년의 광주사건 등에 대해서 듣고 단편적인 정치의식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동안 지역적 정보에 국한되던 그의 한계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은 멀리 떨어진 친척들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만 간혹 이로 인한 갈등도 야기시킨다. 편지를 쓰면서 다소 감정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지만, 곧바로 전화로 전달함으로 인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도 보이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로 인한 관심의 확대와 변화는 물론 그의 언어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했다고 본다. 표준어와 외래어의 순화, 그리고 무엇보다 맞춤법의 정돈은 신문과 함께 뉴스나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 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면을 향한 일기의 성격상 정서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권식 선생의 다음 시기 일기까지 검토하여 전반적인 개인언어사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